

사진으로 세상의 금기들을 '저격'하다

March 1, 2021 | 노형석 기자

Page 1 of 1

100°C

문제의 작가 '메이플소프'전

2021년 3월1일 월요일 한겨레



사진으로 세상의 금기들을 '저격'하다

전시 개막 1주일이 지났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층 전시장에는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은 작품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5일 낮 서울 북촌 소극장 국제갤러리 케이(KE2) 전시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이번 안내판이 서 있었다.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올라간 2층은 평온했다. 여러 군데 가벽을 친 공간 안쪽에 누드와 상체 사진이 잇따라 걸려 있었다. 사자를 빌리고 앉은 여성 보다빌라의 뒤배를 담은 사진을 시작으로 손에 권총을 쥐고 날카로운 선기를 내보낸 남성의 누드, 가혹한 성행위를 할 때 쓰는 고무 장, 두건을 쓰고 쇠사슬을 얹은 사람의 사진이 보인다. 날 뜨겁고 의상적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지만, 대학학부 2학년 부부까지 연립대가 다양한 관객들은 감상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논란이 아니라는 전여 없었다. 화방 쪽은 바빴다.

이번 전시 출품작들은 1989년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사진 거장 로버트 메이플소프가 30~40년 전 찍은 전위적인 명작들이다. 생전 그는 여성 누드 작가에 도전하는 사진은 물론 사건의 켈터마사피로든 매혹적인 고전적 사진을 남겼다. 동성애와 양성애 장면 등을 보았던 사진부터 컷 누드, 정물 등을 담은 고전적 미완의 작품까지 100여장이 그의 사후 32년 만에 한국 전시장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지난 1월16일 국제갤러리 서울 본점과 부산 본점에서 '악마와 아름다운 동성애'인 화두를 만들고 사자처럼 '메이플소프: 2019 리퍼뷰'이다.

회람은 생전 사진들에 정물을 차거나 사진에서 출신을 재현하는 등의 오해를 낳지 않고, 작품을 완전히 관람했다. 일부 미술관은 보수 개성교계 등 일부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기우에 불과하다. 개막 뒤 평일 100~200명, 주말 400~500명이 입장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전시장 사진과 감상평이 줄을 이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인 박승우(59)는 전시와 감상평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충격적이라거나 위생적이지가 보면 우리 나라에 숨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려는 점이 더 돋보이네요. 우리들의 미학을 같이 탐구했다는 점에서 좋은 작품이라고 봐요. 이렇게 공간을 내어준 것도 도와주고 있네요"



1961년 로버트 메이플소프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찍은 사진 초상.



이성 보다빌라 찍은 1968년작 《사자 라이언》 일부본.



1981년작 《클리프턴(Clifton)》

섹슈얼리티·동성애·마조히즘 등 성적 금기 대상 노골적 촬영
솔한 논란·악명 따라다녔던 기인

국제갤러리 서울 본점에선 페티 스미스 등 유명한 초상 작품·풍경·포르노 클라주...
'극한 미학' 이종적 면모 전시

부산 본점에선 탐미주의의 작품 배치 색조를 엄격한 듯한 컬러사진 등 다양한 물성의 양식적 실험 선보

논란이나 항의 불거지지 않아 한국 예술계 볼레랑스 경화 '징표'

■ 악물과 색소 범범인실에서 태어난 필자 국제갤러리의 서울 전시장 1·2층은 빈방과 극단적 탐미주의자라는 이중적 면모를 지닌 작가의 내면이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작품 공간으로 드러나는 일개와 구성을 취한다.

메이플소프는 파센과 사진 속에서는 이미 전설이다. 그는 1970~80년대 미국 예술계와 패션계에 외설 논란으로 큰 파란을 일으키며 사진의 표현 영역을 폭넓게 확장한 혁명가였다. 예술인이다. 동성애, 마조히즘, 동성애 금기 대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상체 사진과 관능적이고 섬세한 꽃 사진 등으로 솔한 논란과 악명 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국제갤러리가 메이플소프 재탄과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까지 화살표로 카메라를 구연한 흑백 사진 중심으로 회화와 조각에 바탕을 둔 고전적 구도의 사진과 색, 악물, 미미 문화 등 광범위하게 정렬된 필름 문화의 양상을 발전시킨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설의 펠크로 미국 예술계 볼레랑스의 워드인 페티 스미스, 전사처럼 걸고뛰는 몸을 통해 전위적인 걸로작가로 자리를 굳힌 보다빌라 리사 이런 남성 예술자들도 많이 리처드 기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울가 트루만 카브라 등 당대 유명인의 초상화, 은유화한 꽃과 정물, 풍경 등의 사진이 층의 심화 속을 수놓는다. 배경과 오묘하게 명확하게 조종하면서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순간을 잡아낸 일련의 거장의 서정성과 정교한 형식 미학을 엿볼 수 있는 흑백 사진들이다.

메이플소프라는 문제적 텍스트는 성도 학적이거나 다름다양한 상에 정면으로 연출한 2층의 '엑스(X)포지티브' 연에서 드러나 있다. 그는 영계 게를 필름 안에 사자라고 프트 예술대의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이었던, 곧 60년대 일탈적인 청년 문화에 합치하면서 악물과 색소에 중독된다. 그에게 악물을 포함한 재 용기는 색소는 상에 활력을 주는 필수 요소였다.

색소를 한 뒤 상대나 주변을 찍는 건 성스러운 일이었다. 작가의 삶과 작품은 다름없고 하지만, 메이플소프처럼 이 말이 절묘하게 통용되는 작가가 드물다. 그는 출세와 물욕에 인간이 될 속물 작가였지만, 사진을 찍을 때 근엄한 예술성으로 사계였다. 배경이나 구도 등을 절대 허투루 잡는 법이 없었다. 녹색 가죽을 입고 쇠사슬 향로에 주먹을 넣고 포스함을 하는 동성애 사진에 비롯해 남자의 포르노 사진 클라주 등이 가득한 2층의 전시 공간에서도 이런 정경한 형식의 구도는 그대로 관철된다. 1988년 '콜 누혹 페티나' 뮤지엄에서 열린 최고 전에서 에이즈로 만사창이 될 발레 기운을 걸치고 나타난 시바스리라는 의식을 행하듯 축하계를 맞은 《제니더 베이》 집의 사진도 인상적이다.

■ 꽃과 누드 초상으로 빛낸 탐미주의의 극치 부산 전시장은 외설 사비를 일으킨 문제작은 빼고 도저한 탐미주의로서 메이플소프의 행보를 보여주는 초상·정물 사진을 주로 배치했다. 보수적 정서가 강하고 가족 관계가 많은 부산의 전시 여건을 반영한 것인다고 화방 쪽은 설명한다. 갤러리인 흑백 사진과 노랑·보라빛 색조를 엄격히 도입한 다이-프랜스의 컬러 사진 등 다양한 물성의 실험을 보여주는 초상·정물·풍경 사진 위주로 작품을 꾸렸다. 관객의 눈길을 가장 많이 받는 작품은 사람의 몸을 상징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꽃' 연이다. 극도로 확대해 포착한 꽃술과 꽃의 모습은 남녀의 성기를 연상시킨다. 특히 1989년작 《작 (꽃) 타라》는 눈여겨볼 만하다. 암전된 검은 화면을 배경으로 크게 튀어져 말린 꽃 이피리아와 마리를 받치는 꽃대의 정연한 선, 표면의 미세한 질감 등이 회화적 맥락을 내놓는다. 1986년작 《트리스와 테라》는 고개를 숙인 얼굴의 흑인 남성과 팔방을 펼치며 숙인 얼굴의 사진이 잇갈리는 모습을 연출한 작품으로, 작가 특유의 절묘하면서도 구성과 감각적 재능을 엿볼 수 있다. 전시에 유일하게 나온 판화 작품인 실크스크린 《클라라》(1983)에서도 정물 구도를 잡는 탁월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 삼십화평의 로망-클레랑스의 정표 국제갤러리의 이번 전시는 삼십화평으로서 다 불이 모험적인 시도였다. 사회 통념을 거는 내용을 담은 전제적 시선에 대해 한국 시대의 관습을 반격하는 의의가 있다. 국제갤러리가 해 온 1999년 작가 자키(자키) 배설로 작품 속에 예수의 신자가를 담은 인드르스 세라노의 개인전을 기획했다가 신성모독이라며 술한 항의 전화를 받은 곤혹을 치른 적도 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전시는 사회적 인식이나 환경을 더는 의식하지 않고, 관객도 전시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켜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예술계에 볼레랑스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점에서 여운을 남겼다. 잘스 김 대표 역시 "관객 반응을 보니 이제 한국의 핵화 신진작가를 성장시킬 수 있어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3월29일까지

노형석 기자 hns@hani.co.kr
도한 국제갤러리 제공